

제공일자	2014. 1. 29 (수)	담당자	변혜원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27, 010-6334-4457

총2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건강나이를 고려한 고령화 상품 도입 제안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변혜원·김석영 연구위원은 『건강나이를 고려한 고령화 상품 도입 제안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4년 겨울호 테마진단).
- 전체 인구 중 고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고연령층의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고연령층은 새로운 고객층으로 등장하고 있음.
 -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60년 3.7%에서 2010년 11.3%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.7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
 - 따라서 이들의 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맞는 보험상품 공급은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고연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제한적임.
 -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고연령층은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하기 어려움.
 - 기존의 보험은 비싼 보험료, 리스크 관리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60~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, 최근 간편심사보험 혹은 무심사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가입연령이 최대 80세까지 늘어남.
- 그러나 간편심사보험은 언더라이팅 완화로 이질적인 위험집단에 대해서 보험료를 동일하게 산출함으로써 역선택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.
 -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반면,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할 것임.

-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려 하지 않고, 건강이 나쁜 사람은 오히려 가입할 유인이 존재
- 한편,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기법을 강화하여 **우량체 및 할증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법을 축적하고 있음.**
 - 동일 연령에서 건강상태에 따른 우량체와 할증체 분류에 따라 보험료를 일정비율로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음.
- 보험회사들은 더 나아가 **우량체 개념을 확대시킨 건강나이***를 도입함으로써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.
 - 고연령으로 갈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구성원 간 **건강상태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**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.
 - 보험나이가 아닌 **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위험집단으로 분류**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짐.
 - 건강나이를 이용한 상품 도입은 보험회사의 위험률차익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, 보험계약자에게는 **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** 제공할 것임.
- * 건강나이란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 가족력, 환경요인 등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사망위험도를 평가한 것임.
- 그러나 현재 건강나이 측정에 대한 통일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**건강나이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임.**
- 따라서 건강나이에 기초한 보험상품을 도입하기 위해서 감독당국과 업계는 **건강나이에 대한 개념 정립, 측정방법**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첨부 : 테마진단 “건강나이를 고려한 고령화 상품 도입 제안”. 끝.